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연수개요

여 행 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연수도시**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인터라켄 밀라노, 로마	**방문기관**	○ 프랑크푸르트 지역 노동조합 ○ 헤센주 공무원 노조
연수목적	**분 야**	**※ 노사**			
	○ 선진 노사정책 및 제도, 근무환경 체험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환경 대응력 향상 ○ 대표노조 및 소수노조와의 합동연수를 통한 노사간 및 노노간 상호이해의 증진과 이를 통한 협력적인 노사문화 구축 ○ 선진국의 공단사업 관련 시설물 견학을 통한 혁신 사례 발굴				
연수기간	2018년 9월 27일 ~ 2018년 10월 5일 (7박 9일간)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박○○	사측
	기획조정실	4급	이○○	사측
	인사처	6급	배○○	사측
	노동조합	5급	안○○	노측
	노동조합	5급	김○○	노측
	노동조합	8급	양○○	노측
	노동조합	5급	신○○	노측
	노동조합	기간제	박○○	노측

나. 연수결과 요약

○ 본 공무국외 연수는 선진 노사정책 및 제도를 체험하고, 노사 및 노노간 상호이해 증진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창출해나가기 위해서 진행되었으며,

○ 방문기관 2곳(프랑크푸르트 지역 노동조합, 헤센주 공무원 노조) 뿐만 아니라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추모시설, 공공자전거, 공원 시설물 등 견학을 통해 이용시민을 위한 개선 방안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 하였음

다.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 별첨

안전을 누리고
서울을 즐기다

2018. 노사합동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2018. 11.

서울시설공단

벤치마킹 포인트 총괄표

연번	방문기관	계 획	달성여부	벤치마킹 성과
1	프랑크푸르트 지역 노동조합 (DGB-Region Frankfurt-Rhein-Main)	- 독일 노동조합의 역사 및 현황조사 - 노동이사제도 도입현황 및 업무내용 파악 - 노조간 갈등해결 제도 및 방안 파악	○	- 노사간 노노간 갈등의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 검토 - 노동이사의 역할에 대한 파악
2	헤센주 공무원 노조 (dbb-hessen)	- 공공부문 노조의 역할에 대한 조사 - 정년 및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비교	○	- 임금 등 교섭간 중재 역할의 중요성 파악 - 임금피크제 도입의 실효성 검토, - 정년연장 안건도입
3	슈투트가르트 주립공원	- 공단 혁신방안 양묘장 설치와 관련하여 녹지조성 현황 파악	○	- 도심내 녹지조성을 위한 방안 도입(주차장, 차고지 등 시설물) - 도시숲 조성 사업교류 검토
4	그슈타이그-인터라켄 묘지	- 스위스 장묘문화 조사 - 공단이 관리하는 묘지와의 비교	○	- 장사시설의 공원화를 통한 공간 활용 - 묘지조경관련 일자리 창출 검토
5	이탈리아 공공자전거 BikeMi	- 공공자전거 홍보방안 조사 - 따릉이와 현황 및 이용방법 비교 - 자전거전용도로 비교	○	- 자전거전용도로 확충 - 공공자전거를 이용한 체험활동 도입
6	밀라노 공원묘지	- 이탈리아 장묘문화 조사 - 공단이 관리하는 묘지와의 비교	○	- 가족묘의 활성화 - 장묘시설의 문화 전시 운영
7	테르미니 지하철역 지하상가	- 상가 활성화 방안 파악 - 국내 상가와 시설물 비교	○	- 상가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홍보 활성화

목 차

Ⅰ. 연수 개요 ····· 1

Ⅱ. 세부 일정 ····· 2

Ⅲ. 독일 연수 결과 ····· 3

Ⅳ. 스위스 연수 결과 ····· 16

Ⅴ. 이탈리아 연수 결과 ····· 21

Ⅵ. 연수 총평 및 소감 ····· 30

『선진 노사문화 체험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2018. 노사합동 국외연수 결과보고

1 개 요

▢ 목 적

○ 선진 노사정책 및 제도, 근무환경 체험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환경 대응력 향상**

○ 대표노조 및 소수노조와의 합동연수를 통한 노사간 및 노노간 **상호이해의 증진**과 이를 통한 **협력적인 노사문화 구축**

○ 선진국의 공단사업 관련 시설물 견학을 통한 **혁신 사례 발굴**

▢ 연수일정 및 방문국가

○ 연수일정: ’18. 9. 27.(목) ~ 10. 5.(금), 7박 9일

○ 방문국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 인원구성 및 수행업무

성 명	담당업무	주요 수행 업무
박○○		· 연수팀 인솔 및 총괄, 방문기관 협력 방안 협의
○○		· 일정조정, 선진 경영 혁신사례 및 적용 방안 조사
○○		· 기관섭외, 인사관리 주요사례 및 적용 방안 조사
○○		· 노사관계 주요 개혁 배경 및 내용 조사
○○		· 방문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지표조사

성 명	담당업무	주요 수행 업무
○○		· 장애인 편의시설 및 근로환경 관련 조사
○○		· 공단사업 연관 시설물 관리현황 및 우수사례 조사
○○		· 방문국 노동환경 및 노사문화 파악

2 세 부 일 정

▢ 연수일정

일자별	출발지	도착지	세부일정 및 비고
9.27(목)	인 천	⇨	▷ 인천 출발(9.27.(목) 12:50) → 프랑크푸르트 도착(9.27.(목) 17:40)
	프랑크푸르트(독일)		
9.28(금)	프랑크푸르트	⇨	**▷ 프랑크푸르트 지역 노동조합 공식방문 (DGB-Region Frankfurt-Rhein-Main)** **▷ 헤센주 공무원 노조 공식방문 (dbb-hessen)**
	⇨	슈투트가르트	
9.29(토)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 주립공원 답사(Sommerhofen Park) (Stuttgart's Green U project)
	⇨	인터라켄 (스위스)	
9.30(일)	인터라켄(스위스)		**▷ 그슈타이그-인터라켄 묘지 답사 (Friedhofs Gsteig-Interlaken)**
	⇨	밀라노 (이탈리아)	
10.1(월)	밀라노		▷ 밀라노 공동묘지 답사 ▷ 이탈리아 공공자전거 BikeMi 체험
	⇨	피렌체	
10.2(화)	피렌체		▷ 로마 테르미니 지하철역 지하상가 견학
	⇨	로마	
10.3(수)	로마		▷ 바티칸박물관 방문 (문화탐방)
10.4(목) ~10.5(금)	로마		▷ 로마 출발(10.4.(목), 21:25) → 인천 도착(10.5.(금), 15:50)
	⇨	인천	

3 독일 연수 결과

▢ 프랑크푸르트 지역 노동조합(DGB-Region Frankfurt-Rhein-Main)

【 방문기관 일반현황】

◆ 노동조합 현황

√ 소개

- 독일의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산업 또는 업종을 단위로 조직됨
- 1949년에 출범한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을 중심으로 주요 산별 노조들이 아래로부터 결집하여 하나의 전국적인 조직을 형성
- 단체교섭이 산업-업종별 조직체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인 힘은 산별 노조에 부여되어 있으며, DGB는 일종의 협의체, 조율 역할을 담당하여 중심체 임무를 수행함

√ 규모 및 조직

- DGB에는 약 650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가맹된 산별 노조는 총 8개임
- 산별 노조 현황

노조명	설립연도	조합원 수	포괄업종
IGM	1949	약 230만	금속
Ver.di	2001	약 200만	서비스
IG BCE	1997	약 65만	화학, 광산 등
IG BAU	1996	약 28만	농업, 임업
GEW	1948	약 28만	교육
EVG	2010	약 25만	궤도, 교통
NGG	1949	약 20만	요식업
GP	1959	약 18만	경찰

○ **방문개요**

- 일　　시: 2018. 9. 28.(금), 13:00~15:00
- 장　　소: Wilhelm-Leuschner-Straße 69-77, Frankfurt am Main
- 방문목적: 독일의 노동관련 제도 및 노사문화 질의
- 면 담 자: Alexander Wagner

【 주요 질의응답】

Q: DGB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노조원들은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나요?

A: DGB는 총 8개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부문별로 각각의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며 그 노동조합의 총 크기가 DG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650만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Q: DGB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기업 및 기관과의 협상은 각기 노조들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DGB는 이러한 노조들의 사업영역을 구분해주고, 노조간의 갈등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DGB의 조직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A: 주 차원에서는 16개주 9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이곳은 헤센주와 튜링겔주 두 곳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부총회를 통해 임기 4년의 주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59개의 지방지부 또한 마찬가지 방식으로 총회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Q: 그렇다면 아까 DGB의 주요 업무라고 했던 갈등 해결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A: 최근에도 IGM에서 중견회사와 갈등이 일어난 것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DGB차원에서 기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Q: 공공부문에는 노동활동 제한 사항이 있나요?

A: DGB에 속한 GEW같은 경우에는 교원 노조이며 독일기본법상 공무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최근 EU에서 단체행동권의 도입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3년전 헤센주에서 3천명의 공공부문 노조에서 단체행동을 진행한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경고정도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Q: 독일이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A: 독일의 기업과 노동자의 인식에는 노동대표와 기업대표 협의회가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독일은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노동이사로 선출되며 의결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이사 임기동안 전임으로 근무하며, 작은 경우에는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노동이사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나요?

A: 독일의 경우는 노조원에서 탈퇴되지 않습니다.

Q: 독일도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임금 상승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지? 제시한다면 그것을 어길시에는 패널티가 부과되는지요?

A: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경우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자의 협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임금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정부에서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확정하여 통보한적이 있는데 EU에서 그것을 막은적도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중재자이며 대연정의 중간 역할을 담당합니다.

Q: 한국은 임금교섭을 1년에 한번씩 진행하는데 독일은 어떻나요?

A: 독일은 별도로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며, 보통은 1년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용자는 1년을 넘기고 싶어하고 노동자는 1년안에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Q: 독일의 경우 파업을 할 경우 모든 근로자가 참여를 하나요?

A: 남은 사람들은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그 사람을 기피하는 문화는 없습니다. 개인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에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이상 근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A: 독일의 경우도 하루 10시간이상 근무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또한 실습생의 경우 저녁 8시이후에는 연장근무를 할 수없는등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녁시간을 가족과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출근시간이 오전7~8시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독일의 휴가제도는 어떤가요?

A: 법으로는 1년에 22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청원휴가 등의 경우는 단체교섭사항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Q: 혹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제도가 있나요?

A: 출산휴가는 당연히 존재하며, 양육휴가 1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남녀 동일하게 100%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시사점】

√ 다수 노조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전문가

- 8개의 노동조합을 중재하며, 전체 노동조합의 권리를 위해 정부 및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갈등조정의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음
- 공단의 경우도 현재 7개의 노조가 운영중이며, 향후 이러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갈등조정 역할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

√ 노동이사제 역할

- 독일은 최초로 노동이사를 도입하여 노동자에게 기업의 의사 결정권을 주고 있음
- 공단도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고 2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되어 있기에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 수렴 및 의결권 행사가 필요

○ 기관방문 사진

<table>
<tr><td> </td><td> </td></tr>
<tr><td>방문 기념품증정</td><td>질의응답</td></tr>
<tr><td> </td><td> </td></tr>
<tr><td>기관 방문 단체사진</td><td>기관 전경</td></tr>
<tr><td>
</td><td> </td></tr>
<tr><td>기관 담당자 명함</td><td>근로자 교육 화면</td></tr>
</table>

▢ 헤센주 공무원 노조(dbb-hessen)

【 방문기관 일반현황】

◆ 노동조합 현황

✓ 소개

- 43개의 노동조합이 소속되어 있는 독일 공무원 노총은 약 120만명 수준의 조합원수를 유지하고 있다.
-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무원이 전체 조합원의 2/3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교섭은 약 30만명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역할

- 각종 공공부문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명예직 노조활동을 진행하며, 공무원 임금 향상 및 시민들에게 노조의 긍정적 이미지를 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 방문개요

- 일　　시: 2018. 9. 28.(금), 16:00~18:00
- 장　　소: Eschersheimer Landstraße 162
- 방문목적: 독일의 노동 관련 제도 및 노사문화 질의
- 면 담 자: Jurgen kettner, Malte Hestermann

【 주요 질의응답】

Q: dbb는 어떤 조직인가요?

A: 공단, 공무원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이며, 저 또한 직업이 교원입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단의 작은 조합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임금 협상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베를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헤센 주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최근 dbb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A: 여성근로자들의 인권신장과, 16~27세사이의 청소년에게 노조 활동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에 임금 인상률 가이드 라인이 있나요?

A: 공무원은 임금협상이 따로 없으나 공공분야는 자체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규모가 조금 작아보이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A: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다수이며 월급을 받는 직원은 3명 이며 나머지 직원들은 명예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방문하신 기관은 상주인력만 100명이 되니 저희보다 규모가 크긴 합니다. 저희의 장점은 이렇게 친숙하고 노동자의 근처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저희의 링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 가입률이 얼마나 되나요?

A: 헤센주 공무원, 공공부문 근로자 12만명중 절반인 6만명정도가 가입 되어 있습니다.

Q: 공무원들도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A: 최근인 2018년 5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권리를 주장하되 본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임용시 임용 선서를 하게 되며 그 내용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체행동보다는 공무원 노사협의회의 일원으로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공무원 임금에도 관여를 하시나요?

A: 네 저희의 역할이 공공기관의 임금협상에 초점을 두고는 있지만 공무원 임금 즉, 정책 입안시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Q: 노조와 사측이 갈등관계가 발생했을시에 해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우선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게 제일 첫 수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렬되어 법원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DBB에서 변호사 및 비용 등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부와 소송을 진행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우리 공단의 경우 장애인콜택시라는 장애인 이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독일은 어떤가요?

A: 독일은 별도로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이동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지원은 정부차원의 복지단체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 보험이나 바우처를 통해서 장애인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현재 공단은 만60세가 정년이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독일은 정년이 어떻게 되나요?

A: 독일의 정년은 현재는 만 65세입니다. 이것은 공공부문과 민간이 모두 같습니다. 또한 4년후부터는 정년을 만 67세로 연장하는 것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임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시사점】

√ 별도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없음

-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의 별도의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이나 패널티가 존재 하지 않음
- 임금은 교섭에 의해서 결정되며, 정부는 노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함

√ 정년 67세 연장 예정

- 현재 이미 산업 전분야의 정년이 65세이며, 별도의 조건없이 정년 67세 연장이 예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년 60세인경우에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의 경우 문화적인 기반이 필수

- 독일의 경우도 별도의 장애인 이동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시설물 이용시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등 문화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오래동안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용하여 장애인 이동권에 지장이 없음

○ 기관방문 사진

<table>
<tr><td> </td><td> </td></tr>
<tr><td>방문 기념품증정</td><td>질의응답</td></tr>
<tr><td> </td><td> </td></tr>
<tr><td>질의응답</td><td>기관 방문 단체사진</td></tr>
<tr><td> </td><td> </td></tr>
<tr><td>기관 담당자 명함</td><td>기관 담당자 명함</td></tr>
</table>

▢ 슈투트가르트 주립공원 (Sommerhofen Park)

【 방문지 일반현황】

◆ 위　　치: Sommerhofenstraße 26, 71067 Sindelfingen

◆ 설립연도: 1990년

◆ 시 설 물: 연못, 산책로, 노천카페, 장미정원, 어린이놀이터 등

◆ 특　　징

√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립공원

√ 두 개의 거대한 호수가 위치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야외 및 실내 놀이터가 있음

【 시사점 및 착안사항】

≪그린유(GREEN U) 프로젝트≫

√ **독일 최악의 대기오염 지역**

- 슈투트가르트 지역은 벤츠(Benz)와 보쉬(Bosch)로 대표되는 독일의 전통적인 공업도시이며,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공기의 순환이 어려움
- 악명높던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유(GREEN U) 프로젝트를 시행

√ **『바람길』과 『도심공원』**

- 오염물질이 잔류하지 못하도록 대류효과를 응용하여 고층 건물의 건설을 막고 도심 가운데 **공기가 흐를 수 있는 "바람길"을 만들어줌**
- 또한 도시의 3면을 U자 형태로 감싸고 있는 **거대한 도심공원을 설립**함.

≪벤치마킹 사항≫

√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단 시설물 활용**

- 점차 심해져가는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어린이대공원 등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을 활용**

- 도봉산 환승주차장 **옥상에 녹지대를 조성**한 것처럼 서울시 전역에 있는 **주차장 및 차고지를 활용**

√ 시립묘지(용미리) 양묘장 조성

- 북한의 산림 면적이 대폭 축소(10년간 32% 감소)로 황폐화됨에 따라 공단 경영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평양 내 도시숲 조성 사업교류를 추진**하여 파주시(용미리) 시립묘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묘목 생산 및 이식 지원 시행** 검토

○방문 사진

도심공원 사진	도심화단 사진
도심공원 사진	도심공원 사진

▢ 기타 시설물

【 벤치마킹 사항】

√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장방수커버 도입

- 독일의 모든 공공자전거에는 안장커버가 있음. **기업들은 안장방수커버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후원으로 **자전거 수량을 늘리면서 안장 방수 효과 및 내구연한까지 증가** 시킬 수 있음

√ 공공자전거 따릉이 다인 대여 시스템 적용

- 독일의 넥스트바이크(NEXTBIKE)의 경우 회원가입된 한명의 아이디로 **총 4대까지 자전거 대여**가 가능, **이탈리아 BIKEMI는 총 2대 가능**
- 따릉이의 경우도 회원가입등 절차에서 아직까지 소외된 시민들이 있을 수 있기에 **다인 대여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보다 많이 이용가능

√ 이용자에게 공공자전거 따릉이 디지털 정보 제공

- 독일의 넥스트바이크(NEXTBIKE)의 경우 **자전거 자체에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어 **대여, 반납, 주차 관리가 모두 가능**하며, 전면부에는 사용중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됨
- 공단 따릉이의 경우 GPS가 설치되어 있기에**『따릉이 어플』을 활용**하여 이용시간, 속도, 칼로리 소모량 등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임.

√ 주차권 발행기 등 시설물에 태양광 전열판 및 와이파이 설치

- **태양의 도시 서울**에 걸맞게 곳곳에 위치한 **거리 시설물에 전열판을 설치**
- 市 공약 사항중 하나인 **지하·옥탑방·고시원도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 구축**이 가능케함

√ 공단 이미지를 활용한 시설물 설치를 통한 홍보

- 축구나 야구 등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의 **이미지를 활용한 시설물 설치**로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수 있을 것 임.

○시설물 사진

<table>
<tr><td>
</td><td> </td></tr>
<tr><td>안장방수 커버 사진</td><td>자전거 거치 사진</td></tr>
<tr><td> </td><td>
</td></tr>
<tr><td>독일 넥스트 바이크 사진</td><td>넥스트 바이크 내장 컴퓨터 사진</td></tr>
<tr><td> </td><td> </td></tr>
<tr><td>자전거 이용 상태 표시 화면</td><td>소세지 모양의 쓰레기통</td></tr>
</table>

주차장 표지에 태양광 전열판 설치 사진	도로 와이파이 핫스팟 설치 사진

4 스위스 연수 결과

▢ 그슈타이그-인터라켄 묘지 (Friedhofs Gsteig-Interlaken)

【 방문지 일반현황】

◆ 위　　치: 3814 Gsteigwiler, Schweiz

◆ 설립연도: 1965년

◆ 시 설 물: 매장묘, 납골묘, 봉안담, 공동체 무덤

◆ 특　　징

√ 관리주체: 인터라켄 **지방자치단체 묘지연합**

√ 묘지관리소에서 지정한 **관목 숲 공동 운영**

√ 묘지 사용기간: 매장묘(20년), 납골묘(20년), 봉안담(15년)

√ **종교 묘역형 형태로 관리**되고 있음(천주교 성당과 함께 위치)

√ 매장깊이

- 성인 1.8m, 3~12세 1.5m, 3세 미만인 경우 1.2m
- 개별 분묘 간의 거리는 최소 30cm의 거리를 이격

○ 시사점 및 착안사항

【 스위스 장묘문화】

스위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마다 실정에 맞는 장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사망 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묘지에 묻히고 **묘지의 크기 및 사용 기간을 엄격히 제한.** 스위스 **전체 화장률은 70%** 정도로 화장 문화가 정착된 나라임.

스위스의 집단묘지들의 특징은 **시내 한복판에 주택가와 함께** 있으며 하나의 **공원으로 존재.** 매장 및 납골 묘역은 석관 또는 정원식 묘지로 돼 있음. 묘역은 묘지 간 간격을 많이 두지 않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옥외 벽 식 납골시설의 경우 담장을 이용하거나 묘역 내 한편에 옥외 벽 식 납골시설을 설치함.

【 벤치마킹 사항】

√ 장사시설의 공원화 확대

- 그슈타이그-인터라켄 묘지에서도 보듯이 마을에서 바로 이어지는 공간에 묘지가 존재하며, **숲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장사시설 자체를 **도시기반 시설의 일환으로 여기는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부족한 **녹지 생태계를 체험**해 볼 기회를 마련

√ 묘지 조경관련 일자리 창출

- 외국의 경우 하나의 묘지 자체가 **정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묘지마다 묘지를 관리하는 **정원사(Gärtner)**가 존재하고 있음. 장사시설의 공원화와도 관련하여 관련 능력을 갖춘 청년 혹은 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방문 사진

방문 단체 사진	봉안담 사진
견학 사진	묘지전경 사진
정원식 묘지 사진	묘지전경 사진

▢ 기타 시설물

【 벤치마킹 사항】

√ 순찰, 청소 등 시설물 관리 시 전기 바이크 및 차량 활용

- 시설물의 순찰, 청소 등을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전기 바이크나 1인용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 공단의 경우 **도로순찰 등의 업무**나 서울어린이대공원 등 **범위가 넓은 지역**에서 **전기 바이크나 1인용 차량을 도입**해 볼 수 있을 것 임.

√ 접이식 주차시설 활용 (장애인 전용주차시설 등)

- 스위스 공용주차장의 경우 접이식 주차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음
- 장애인 전용주차시설에 **접이식 주차시설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결합**하여 장애인 인증을 받아야만 접이가 내려가서 주차장 이용이 가능토록 도입 가능

√ 장애인 화장실 및 수유실 확대 설치(barrier-free)

-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최소 10평 이상의 장애인 화장실 및 수유실이 설치되어있음. 공단 경영혁신 방안 중 하나인 **배리어프리 (barrier-free)**의 한가지 방안으로 장애인 화장실 및 수유실 확대 필요

√ 이용 가능한 상점 안내 무인안내기 설치

- 인터라켄 역 앞에는 주변에 이용 가능한 상점들이 문을 열면 설치된 무인안내기에 상가 이용시간 등이 점등되어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보조하고 있음.
- 공단도 지하철역과 이어져 있는 통로에 이러한 **무인안내기를 설치**하여 각종 **지하상가 등에 있는 매장들과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단순하게 이용시간 안내뿐만 아니라 **매장에 대한 홍보 등을 추가로 접목**하여 상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활용 가능

○ 시설물 사진

전기스쿠터 사진	전기차 사진
접이식 주차방지시설 활용 사진	접이식 주차방지시설 활용 사진
상점 키오스크 사진	장애인 화장실 및 수유실 사진

5 이탈리아 연수 결과

▢ 바이크미(BIKEMI, 밀라노 공공자전거)

≪시설물 일반현황≫

◆ 설립연도: 2008년 12월 3일

◆ 관리주체: 밀라노 교통국(ATM)

◆ 특　　징

√ 이용요금: 최초 30분간은 무료, 1시간당 1유로 (후불제, 카드이용)

√ 이용시간이 평일 기준 07:00~23:00로 지정되어 있음

√ 자전거 거치대는 400여곳으로 관광지 등 도심에 집중적으로 배치

√ 세계최초로 1,000대이상의 전기자전거를 배치

【 벤치마킹 사항】

√ **자전거 전용도로 활용**

- 우리나라가 자전거도로를 차도와 함께 이용하는것과 달리 밀라노의 경우 **별도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폐철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
- 우리나라도 향후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자전거를 통한 체험 활동**

- 『북마크 밀라노』라는 **관광지 투어가 가능한 체크포인트**들을 만들어 **관광객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킴**
- 공단도 **서울시 및 공단의 주요 시설물들과 연계**하여 따릉이 투어 등의 **흥미요소를 도입** 하는 것도 가능

○시설물 사진

바이크미 체인 보호대 사진

자전거 거치대 사진

자전거 거치대 사진

자전거 견학 사진

공공자전거 이용 사진

분리형 자전거 전용도로 사진

▢ 밀라노 공원묘지(Cimitero Comunale)

≪방문지 일반현황≫

◆ 위　　치: Via Felice Cavallotti, 30, 20811 Cesano Maderno MB

◆ 시 설 물: 납골묘, 봉안담, 가족묘, 조각상 등

◆ 특　　징

√ 밀라노 외곽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음

√ 상당한 규모로 다양한 석상으로 마치 유적지에 온듯한 느낌을 줌

√ 네 벽자체가 납골묘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상은 지상처럼 꾸며져 있으며, 지하 2층까지 묘지로 활용되고 있음

√ 80년대 이후 교황이 화장에 대해 인정하면서 화장수요가 증가 중

【 벤치마킹 사항】

√ **가족묘의 활성화**

- 이탈리아의 경우 대가족(세대) 문화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몇 대를 이은 가족묘가 많이 있었음.
- 향후 보다 화장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납골묘 또한 부족해질 우려가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가족묘 또는 가족납골당**을 통해서 **보다 많은 봉안 시설을 확보**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됨

√ **장묘시설의 문화 전시화**

- 자연과 환경의 조화를 중시하였던 스위스 인터라켄 묘지와는 달리 **밀라노 공원묘지의 경우는 보다 예술품**에 가까운 느낌.
- 봉안담이나 가족묘, 납골당 모두 각기 **다른 모양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
- **3D프린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봉안함 디자인**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생전 고인 혹은 유가족들의 취향에 추모시설을 운영 가능할 것 임.

○방문 사진

납골묘 사진	공원묘지 전경 사진
공원묘지 견학 사진	가족묘 사진
가족묘 사진	매장묘 사진

▢ 테르미니역 지하상가

≪방문지 일반현황≫

◆ 위　　치: 00185 Roma RM

◆ 관리주체: ATAC (Azienda Tramvie ed Autobus del Comune di Roma)

◆ 설립연도: 1980년

◆ 시 설 물: 지하철 플랫폼, 지상 2층, 지하 1층

◆ 특　　징

√ 로마 지하철 노선의 중심지로서, 기차역도 별도로 존재하며

√ 로마 지하철은 A선과 B선이 교차로 이어져 유일하게 환승이 가능한 역

√ 지하에는 대형마트를 포함해 식당, 옷가게 등 매장들이 위치

√ 로마시내 전체가 유적지인만큼 테르미니역 지하에도 유적지가 존재하며 현대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

○ 시사점 및 착안사항

【 벤치마킹 사항】

√ **홈페이지를 통해 상가의 매장 소개 (www.romatermini.com)**

- 테르미니역은 **독특하게 역 자체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물 찾기 서비스, 지하도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도상가의 신규매장 오픈 등 소식**을 이용자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 공단도 "지하G:HA" 등의 잡지 외에도 **개별 지하상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찾기 쉬운 소방시설**

- 소화전 및 소화기가 **사람의 눈높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투명한 케이스**안에 위치하여 **긴급한 상황 대처에 빠른 시간에 활용**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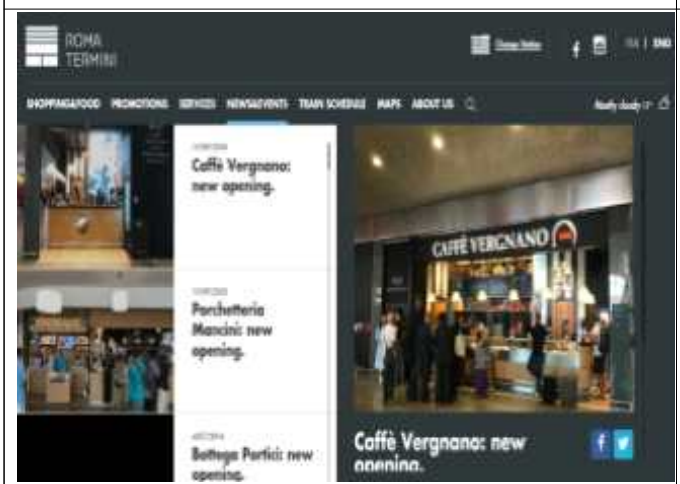
√ **다양한 볼거리를 통한 방문객 모집**

- 이탈리아 전체가 유적지인 만큼 테르미니역 지하에도 유적지가 존재하여 **단순히 구매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공단 지하도 상가도 서울 곳곳의 **지리적, 문화적인 특징을 살린 디자인** 혹은 행사를 통해 더욱 **다양한 홍보 거리를 제공** 가능케 해야 함

√ **장애인 전용 승강기 설치**(barrier-free)

- 일반 자동계단 및 승강기와 **별도로 장애인 전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편의를 제공함.
- 돔구장에서 진행된 배리어프리 영화제 등 문화행사 개최 시에 **실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 시설물 설치가 필요

○ **방문 사진**

<table>
<tr><td> </td><td> </td></tr>
<tr><td>지하철역사 청소차량 사진</td><td>지하철역사 사진</td></tr>
<tr><td> 
</td><td> </td></tr>
<tr><td>테르미니역 홈페이지 사진</td><td>지하상가 전경 사진</td></tr>
</table>

상가내 유적지 사진	투명 소화전 케이스 사진

▢ 기타 시설물

【 벤치마킹 사항】

√ 공공자전거 손 보호대 및 전조등 개선

- 이탈리아 공공자전거의 특징 중 하나로는 자전거에 손 보호대 및 상당히 큰 전조등이 달려있는 것
- 공단 따릉이에도 바람을 막아주는 손 보호대를 부착하여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 이용자들의 **안전과 추위를 보호**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
- 또한 야간 시간의 이용객들을 위해 **전조등 크기를 확대**하여 **시야 확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프레임디자인을 통한 홍보용 자전거 도입

- 천편일률적인 따릉이에서 벗어나 기업 홍보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
- 현재는 바퀴 디장인만 변경이 가능하다면, 향후 **프레임 디자인**을 통해 **이동하는 홍보물로서의 효용성**을 찾을 수 있음
- 또한 시내 이동을 위해 **전기 바이크를 도입 ·활용**할 수 있음

√ **올인원 세면기 설치**

- 대공원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세정제, 물, 에어타월이 **일체형으로 설치된 "올인원 세면대"를 설치** 하여 편의성 제고

√ **주차장 시설물 전기차 충전소 활용**

- 이탈리아는 노외주차장을 **세가지 색(흰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구분** 하여 편리하게 본인의 목적에 맞는 주차장소를 찾을수 있음.
- 또한 전기차 보급을 위해 **노외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함

√ **장애인 이동지원 시설물 지원**

- 이탈리아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장애인들의 방문도 많음.
- 여러 방문지에서 시설물 이용시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대여**가 가능하며,
-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저상 트램, 저상 버스로 이루어져 있어 장애인 **탑승시 차체를 기울여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수 있도록 도움

○ **시설물 사진**

자전거 손보호대 사진	자전거 전조등 사진

홍보용 자전거 사진	올인원 세면대 사진
전기자전거 사진	노외주차장 전기충전소 사진
노외주차장 사진	자동식 주차방지턱 사진

저상 트램 사진	장애인 휠체어 사진

6 연수 총평 및 소감

√ 박○○: 우리 서울시설공단도 2년만에 임단협교섭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생활 양립, 변화하는 노동환경, 주52시간 근무제도 정착 등 큰 이슈가 많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해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노사합동연수에서는 선진 국가에서 노동조합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현재 우리의 노사관계를 돌아보고 그들의 앞선 정책과 문화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단시간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의 구축과 제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바람직한 교섭의 틀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공단으로서 배울 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단의 다양한 시설물에 적용 할 수 있는 선진 시설물 · 제도들을 경험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해볼만한 아이디어를 얻은 것 또한 큰 소득이었습니다. 2018년 서울시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정책중 하나로 뽑히는 공공자전거의 경우도 자전거 이용 문화, 홍보와 투자를 선순환 해나가는 사례는 공단이 추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모습에 부합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신뢰깊은 노사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 노사합동연수를 다녀오며 그간 해왔던 업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가 업무를 해오면서 타기관 벤치마킹도 하고 공단의 업무 실적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왔었습니다. 금번 연수에서는 선진국의 다양한 제도들을 공단에 접목하여 단지 평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공단의 존재 이유인 공공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수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할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문화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시스템이나 설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을 배울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배**○○: 우선 선진국의 노사 관계 문화를 직접 체험해볼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루 아침이 아닌 긴 시간동안 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자부심으로까지 느껴지는 인터뷰 시간이었으며, 현업인 인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크게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지금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을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채용시에 활용할 아이디어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뿐만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느낀 점이 많은 연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에서부터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유럽 선진국의 경우 이미 사회전반에서 이러한 문화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단의 경우도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안**○○: 금번 연수에서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하면 노사간, 노노간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연수중 어느 때나 자유롭게 논의하고 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논쟁하고, 언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노사관계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협력적인 관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노측과 사측 모두 윈-윈하는 성과를 달성하는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노사합동연수를 통해 이러한 인식전환을 이뤄내어 복지, 근로조건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와 과정을 구축해 나갈수 있는 자산을 얻은 것 같아 크게 감명을 받은 연수였습니다.

√ **김○○**: 노사관계에 있어서 신뢰라는 것은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선진국의 노동조합들은 모두 이것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신뢰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 간의 일인지라 매번 합리적이고 다툼없이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 노동조합에서는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고 그 토대를 기반으로 대화의 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은 노동이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경영진 이사회에 노동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개진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경우도 두명의 노동이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료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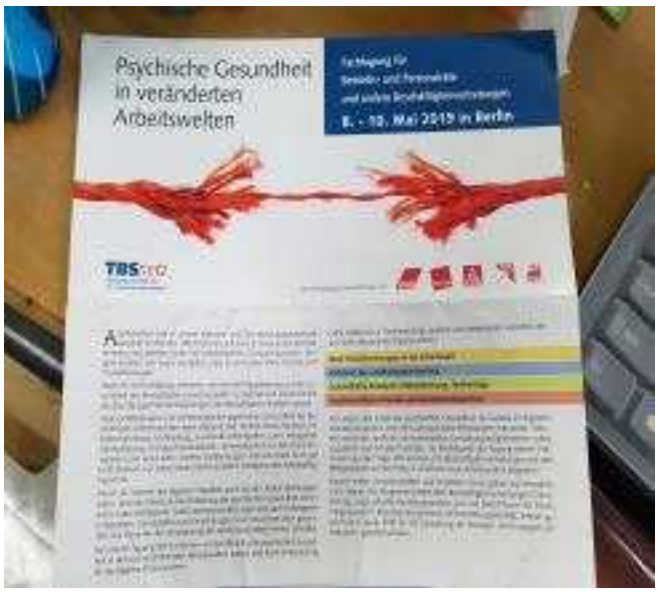
√ **양○○**: 저는 노동조합뿐만아니라 여성의 권익과 장애인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하면 일과 생활의 조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독일 인터뷰에서 독일시민들의 대부분은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위해 조금 서둘러 출근하여 가족들과 여가를 즐긴다는 부분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선진국과도 비견될 만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에 대한 시스템이 보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변화해 나가야할 일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 **신○○**: 기억에 가장 남았던 것은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묘지였습니다. 실제 업무하고 있는 장소와도 비교해보고 배울점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유럽 선진국의 장묘문화는 하나의 공원 혹은 녹지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는 점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방문에

서는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였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협상의 장을 통해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조직의사 결정과정 참여할 때 조직의 발전과 노동자들의 이익을 담보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 상수도 노동조합의 경우 제1노조에 비하면 작은 인원이기 때문에 가끔은 서로간에 다른 의견이 표출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긴 시간동안 함께 사측, 1노조 위원분들과 선진 노사문화를 벤치마킹하면서 서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 신뢰할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전노사관계 확립에 기여하는 것 뿐 아니라 이탈리아 거리의 상수도 등 유적지와도 같은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도 앞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공무국외연수 관련 수령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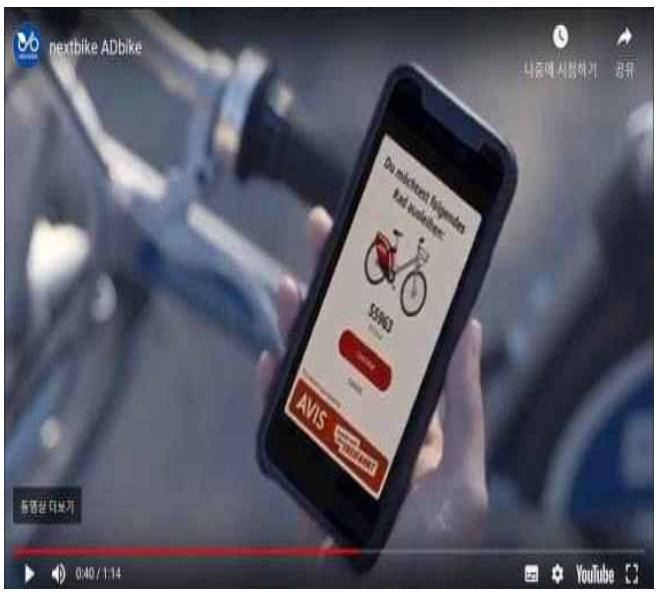
tacheles
9
dbb.de
MUSS SEIN
dbb-Streikleiterkonferenz

tacheles
3
Warum Überlastungsanzeigen wichtig sind

AUF ZUR
BILDUNGSDEMO!
500 Millionen Euro
Sofortprogramm für Bildung
Samstag, 22. September 2018
Frankfurt
Kass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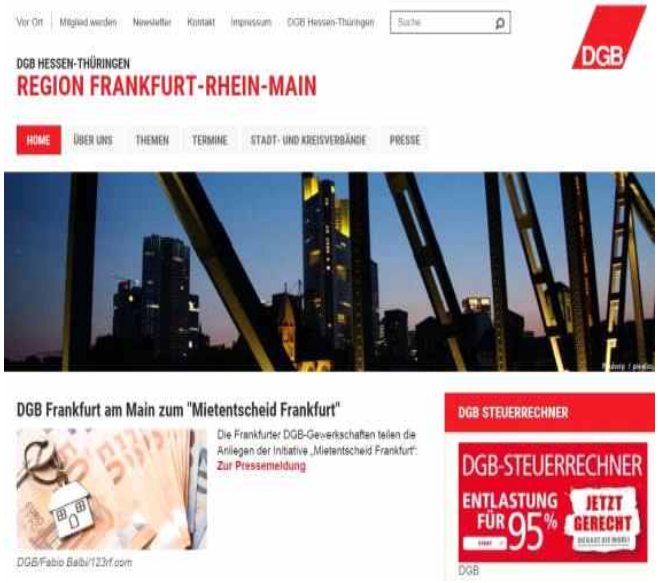
SHE
CHOIR FFM
WHAT: a free, non-auditioned choir
WHO: anyone identifying as female
WHERE: Klapperfeld near Konstablerwache
WHEN: every Wednesday, 7-9 pm
If you can sing in the shower, you can sing in a choir, so why not give it a try?
shechoir.com/frankfurt
facebook.com/SHEChoirFfm

nextbike
ADbike
SPONSORbike
BUSINESSbike
PT | Cities
CAMPUSbike
News
English
1
27
197


nextbike ADbike
AVIS
0:40 / 1:14
YouTube

Samsung - Floor Graphic (MI)

Ferrero - Bike (MI)

Mipharm - Kit brandizzato

Ferrero - Cycle Rack (MI)